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Influences of Personality Patterns on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Conflict Resolution Styles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 수 장 진 경*

금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임팀장 신 유 경

Dep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Chang, Jin-Kyung

Geumcheon-g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eam Manager : Shin, Yoo-Kyung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how personality patterns on marital adjustment are influenced by interacting with conflict resolution style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intermarriage couples comprising 293 pairs (586 patients) who lived in Korea for at least 5years. Snowball sampling was carried out from August to October 2011. SPSS 18.0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 The conscientiousness and openness of personality patterns turned out to be common personality factors that represent a positive affect on the intermarried couples' effort to adapt. (b) The extroversions, agreeableness, and neuroticism shown significantly increase and decrease the intermarried husband's marital adjustment, but the same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rmarried wife's marital adjustment. (c) Factors that affect marital adjustment, the conflict resolution styles of intermarriage couples showed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gender. (d) The Intermarried wife's personality patterns represented a positive affect on her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her husband's conflict resolution styles, while the intermarried husband's personality patterns represented a positive affect on his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his wif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주요어(Key Words) : 다문화부부(intermarriage couple), 성격유형(big five personality patterns), 갈등대처방식(conflict resolution styles),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커플자료(pair data)

* 주저자·교신저자 : 장진경 (E-mail : jinkyung@sookmyung.ac.kr)

I. 문제제기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과소화(過少化)현상을 고려해 볼 때,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급증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각 국가마다 안정된 다문화사회의 정착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Joshi & Krishna, 1998; Lewellen, 2002). 그 중국계결혼으로 인한 다문화부부의 적응은 안정된 다문화사회의 가장 기본체제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교육적 배경 등을 기초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결혼을 고려하고 있으나(Lewellen, 2002),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인종 및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국제결혼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McFadden & Moore, 2001). 한국사회 역시, 1900년대 초 근대 유행파와 일본, 하와이, 중남미 등의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국제결혼이 시작되어 2011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은 총 29,762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2).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혼인만을 살펴보면, 2011년 총 22,265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6.8%에 이른다.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혼인이 1990년 619건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수치는 약 3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것은 중국, 베트남과의 수교 이후 인적 교류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이다(김근식·장윤정, 2009; 김은실, 2002). 한국사회에서 농촌남성과의 결혼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정부는 1990년부터 “연변처녀, 농촌총각 짝짓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여성들이 고학력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게 늘어나면서 과거 관습적인 결혼보다는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다. 반면, 한국사회의 농촌남성 및 취약계층남성들은 배우자 선택 시 요구되는 개인적 자원의 상대적 부족으로 결혼적령기를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로 한국사회의 남성들은 결혼상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게 되었고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김근식·장윤정, 2009;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

국제결혼은 국내결혼과 달리 배우자 선택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갖는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들은 맞선을 보기 위해 종교단체나 상업적 중개업자가 주도하는 대로 소개비용을 지불하고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여성들의 본국에 직접 방문한다. 그러나 제한된 일정과 기회로 인해 한국남성들은 상대의 첫인상 혹은 외모에 대한 호감으로 배우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일부는 배우자가 될 외국인 여성의 고향, 학력, 가족, 친구관계 등 아내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조차 모르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선택 이후,

한국남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배우자초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린 후 아내가 한국에 입국하면 비로소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김근식·장윤정, 2009; 홍달아기·채옥희, 2007).

애정을 갖기도 전에 성사된 결혼생활로 인해 다문화부부는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반부부와는 다른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되며, 이는 부부갈등으로 심화되곤 한다(김근식·장윤정, 2009; 임성옥·강성률, 2011). 다문화남편들은 한국사회에서 주변인인 경우가 많고, 다문화아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홀로 이주해 온 경우가 많아 사회적 지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부부는 가족생활 및 부부생활의 적응과정에서 배우자가 가진 이질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폭력과 폭언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대처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는 다문화부부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시, 도마다 설치되었고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문화부부들은 여전히 관계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나 이혼에 이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부부이혼은 2004년 3,300건에서 2008년 11,25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통계청, 2010).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부부들의 원활한 관계적응을 위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 및 정책지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다문화 부부적응에 관한 심층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문화부부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부부관계중심의 분석적인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결혼만족(Chrania, 2006; Epaitein & Baucom, 2002; Lussierand Sabourin, 1999), 거주지역 및 출신국에 따른 국제결혼부부의 적응(양순미·정현숙, 2006; 장진경·신유경, 2010a; 장진경·신유경, 2010b), 갈등대처방식이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김영희·정선영, 2007; 신경희·양성은, 2006; 이훈구, 2004; Gottman, 1994a; kitzman, 2000), 결혼이민자여성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문선숙·김창희·심미경, 2009;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b; Jegal, 2007), 결혼이민자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조유리, 2000; 최규련 1994),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부부적응(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8; 장진경·전종미·신유경, 2009a; Shute & Spitzberg, 2003)등이 이에 해당된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문화부부의 결혼안정성은 다소 낮으며, 결혼만족이나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갈등대처능력, 스트레스 조절능력,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여 가족해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써 성격특성은 오랫동안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연구(Chrania, 2006; Epatein & Baucom, 2002; Lussier & Sabourin, 1999)에서는 개인내적 특성의 안정성이 부부관계의 지속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밝혔다. Lussier and Sabourin(1999)은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역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양 배우자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계적 요인으로써 갈등대처방식은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며,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김영희 · 정선영, 2007; 신경희 · 양성은, 2006). 즉 다문화부부의 관계 불화 및 갈등, 그 자체가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상황을 관리하는 갈등대처방식이 결혼관계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Bowman, 1990; Gottman, 1994a; Natarius & Markman, 1993). 개인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국외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Baucom & Epstein, 1990; Gattis et al, 2004; Lawrence, 1995). Retzinger(1991)은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이기 보다 문제를 관리하고 통합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본인의 성격유형이 갈등대처방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부적응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Paired Data를 통해 결혼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서 나타내는 조절효과를 파악하여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관계적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부부의 개인성격유형과 부부적응

성격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이고 고유한 특성의 총체적 집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개인의 성격특성은 결혼 전과 결혼 후에도 큰 차이 없이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김경미 · 김영희, 2009; Robins, Caspi, & Moffitt, 2000). 부부적응에 주요한 변인인 성격특성의 측정은 자기보고식 Big Five Model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McCrae & Costa, 1992; Gattis et al., 2004; South, Turkheimer & Oltmanns,

2008), 연구자들은 Big Five Model이 개인의 기초적인 성향 파악에 통합적인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cCrae, 1992; Montag & Levine, 1994).

Big Five Model은 일반적인 성격특성을 아래와 같이 5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한다. (1) 신경성은 부정적 정서의 만성적 경험여부로 측정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긴장되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변덕이 심하고, 의기소침하고 까다롭고, 화를 잘 내는 것이 특징이다. (2) 외향성은 활동성과 사회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원하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모험을 좋아하고, 활동적이며 모든 일에 적극적인 특징을 갖는다. 외향성은 사회적 환경에 대해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부관계나 결혼생활 적응과 관련성이 높은 성격특성으로 알려져 왔다. (3) 개방성은 상상력, 호기심, 자유로운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생활에서 상상력과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며, 변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4) 친화성은 신뢰롭고 조화로우며 협동적인 사람을 지칭한다. 친화성은 주로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순응적이고 남을 돕고자 하는 이타심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5) 성실성은 조직적이고 성취적이며, 일에 대한 역량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유형으로 설명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으며, 과제에 대한 조직력과 성취욕구가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다. 성실성은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어 왔다(McCrae & Costa, 1992).

성격특성과 결혼만족 및 부부적응에 대한 상관관계연구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격특성이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배우자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Christensen, Jacobson, and Babcock(1995)과 Johnson and Greenberg(1995)은 배우자의 감정, 생각 또는 행동이 상대 배우자의 기능적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부간 성격특성의 상호작용을 부부적응에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Funder(2001)은 장기적 연구를 통해, 결혼생활의 질은 남편과 아내의 실질적인 성격특성보다 자신의 성격특성과 자신이 지각하는 상대방의 성격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내 자신의 신경증, 아내가 지각한 남편의 성실성과 친화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성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성격특

성으로는 남편 자신의 신경증, 개방성, 성실성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지각한 아내의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었다(김경미 · 김영희, 2009; Caughlin, Huston & Houts, 2000). Gattis et al.,(2004)의 연구에서 불행한 부부는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게 나타났고, 친화성과 성실성은 낮게 나타났으며, 외향성과 개방성은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의 성격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 부부상담 및 부부교육의 현장에서 성격특성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연구들이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며,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간의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다문화부부의 건강한 적응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성격특성이 결혼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는 개인적 요인이라면 다문화부부가 가정 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에 대한 자기평가를 기초로, 성격특성이 본인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배우자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다문화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2.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해결방안의 상호작용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마찰을 의미한다. 성격차이는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족해체에 이르게 된다. 기존의 부부간 성격특성과 갈등해결방안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성격특성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에 관한 연구(공선숙, 2010; 이하식 · 김경연, 2005; Williams & Tappan, 1995)와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에 따라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연구(김경미 · 김영희, 2009; 오선주, 2002; 이선미 · 전귀연, 2001; 이영숙 · 박경란, 2011)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선행연구에서 주로 MBTI 성격유형을 통해 부부가 유사한 경우와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경우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공선숙(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 방문부부들의 경우 J/P 지표의 일치여부에 따라 남편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부부간 J/P 지표의 불일치가 부부갈등의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Williams and Tappan (1995)은 성격유형에서 유사성이 많은 부부는 상이한 부부

보다 오히려 더 갈등이 심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부부 모두가 외향형인 경우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경향 때문에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성격유형이 유사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긍정적 감정 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적인 갈등영역에 있어서 부부 선호지표가 일치할수록 개인적 갈등영역에서의 갈등수준은 낮게 지각되었다(이하식 · 김경연, 2005). 이는 부부상호 간의 성격유형이 동일하거나 일치하는 집단일수록 부부의 갈등수준은 더 낮게 지각하게 되며, 긍정적인 갈등해결방식에 더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에 따른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 모두 본인의 성격에 의해 갈등대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에 본인의 성격이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것이다. 한편, 부인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인의 성격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갈등에는 본인의 성격과 배우자의 성격 모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그 설명량을 보면 남편 본인의 성격보다 부인의 성격이 주는 설명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이러한 차이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주로 가정생활에 관련된 문제이며, 가정생활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더 많이 관여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도 부인에게 있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 아닌지 추측되었다(김경미 · 김영희, 2009; 오선주, 2002; 이선미 · 전귀연, 2001; 이영숙 · 박경란, 2011).

위 선행연구들을 통해보면, 동일한 갈등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부에 따라 해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이 다름을 보게 된다. 이것은 객관적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다루기보다는 주관적 지각에 관심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한 갈등상황이라 하더라도 부부간의 성격유형의 일치 혹은 불일치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인지하는 정도,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갈등 그 자체보다는 부부가 사용하는 갈등 관리와 갈등해결양식이 부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어 다문화부부관계를 조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부부갈등의 상호작용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과 부부적응

부부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과 배우자에 의해 평가되는 결혼의 질은 부부적응과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로 연구되어 왔다 (Hertel, & Swain, 1974; Rands, Levinger, & Milinger, 1981; Raush et al., 1998). Gottman(1994a)은 결혼생활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공

존하지만, 결혼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적 상호작용이며 이를 대표하는 것이 부부갈등이라고 언급하였고, 부부갈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한국사회에서도 급증한 다문화부부에 집중하여 그들의 관계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갈등요인을 파악하려는 학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문화부부의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국제결혼이 갖는 특수변인 중 결혼경로, 문화적 차이, 국적취득 등의 어려움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며, 능숙하지 않은 한국어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김오남, 2006; 양선화 등, 2004).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갈등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는 건강문제, 성격차이, 교육수준, 외도나 부정, 폭력, 자아존중감, 종교문제 등이 부부갈등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요인으로는 한국의 며느리로서 경험하는 시댁과의 갈등, 자녀양육으로 인한 혼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

사회구조적 문화요인으로는 한국어로 인한 스트레스, 인종차별, 국적취득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부부적응 상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Fu & Heaton, 2000; Kalbach, 2002). 특히 결혼이민자여성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소외감과 답답함으로 고통을 받음으로써 부부갈등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여성들은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본국에서 한국어의 기본적인 어휘를 익히는 수준이며 결혼한 이후 2년 내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가장 큰 갈등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장진경 등, 2009).

다문화아내의 출신국 역시 다문화부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인과 외모적,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최근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장진경 등, 2009). 필리핀과 몽골 여성의 경우, 모계중심사회의 영향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보다 높은 학력과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양선화 등, 2004; 장진경 등, 2009). 한편, 많은 외국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지만 성역할 기대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 속에서 부부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숙, 2007; 양선화 등, 2004; 장진경 등, 2010a).

다문화부부의 갈등영역을 분석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부부갈등 자체 보다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해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갈등대처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선행연구들도 있었다(송말희, 2000; Bowman, 1990; Gottman, 1994b). 이는 갈등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Bowman, 1990; Gottman, 1994b;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부부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거나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갈등대처유형을 세분화하여 부부적응과 관련된 심층적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Berko, Rosenfeld, & Samovar(1997)은 자신의 욕구를 고려하는 정도와 상대방의 욕구를 배려하는 정도에 따라 회피형, 타협형, 덮어주기형, 지배형, 통합형의 5가지 유형이 있으며 갈등을 겪을 때 여성과 남성의 갈등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방법을 찾아내고 의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남성들은 갈등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문제를 다루려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Berko, Rosenfeld, & Samovar, 1997; Dominian, 1995). 한국의 연구에서도, 아내는 갈등상황에서 남편보다 요구적이거나 언어적 표출 또는 외부도움 요청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선미 · 전귀연, 2001; 최규련, 1994). Gottman and Krokoff(1989)는 갈등으로부터의 회피가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eavy, Laynes, and Christensen(1993)은 남편이 요구형이고, 아내가 후퇴형인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은 부부가 갈등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갈등에 대처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방식의 비율이 어떠한지에 따라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지하고 있다(Fitzpatrick, 1998a, 1998b; Fitzpatrick, Follis, & Vance, 1982; Gottman, 1993, 1994; Gottman & Levenson, 1992). 그러나 기존에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부부관계의 갈등요인들에 집중하고 있어 갈등대처방안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영역은 일반부부와 달리 특수성을 가질 수 있으나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은 일반부부와 동일하게 부부적응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 갈등대처방식이 개인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개인별 성격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다문화부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의사소통 효율성 및 갈등대처방식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방대하고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두 편으로 나누어 보고한다. 본 논문은 연속보고의 두 번째로써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5년 내외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부부 293쌍(586명)이다. 한국의 통계청 자료(2010)에 따르면, 다문화부부가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이는 시기는 결혼기간 5년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부부의 적응을 연구하는데 있어 결혼기간 5년은 부부 적응의 중요한 기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모집은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졌다(장진경·신유경, 2012).

자료 수집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발송을 통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아내의 본국 언어로 번안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는 해당 출신국 여성들을 자문위

원으로 문장의 정확도 등에 대한 조언을 통해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1) 개인성격유형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Benet-Martinez & John(1998)의 Big Five Index (BFI)를 Seo & Choi(2005)가 요인분석을 통해 번안한 한국형 Big Five Index (BFI)를 활용하였다. BFI 척도는 신경성,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의 5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BFI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5개 유형 각각의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남편 성격특성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외향성 .72, 친화성 .70, 성실성 .77, 신경성 .80, 개방성 .68이다. 아내의 성격특성척도 내적 일치도(Cronbach' alpha)는 외향성 .82, 친화성 .66, 성실성 .73, 신경성 .86, 개방성 .64이다.

2) 갈등대처방식

본 연구는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McCubbin, Karson, and Olson(1982)의 가족대처전략 척도(F-Copes)를 최규련(1994)이 수정번안한 한국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부 갈등대처방식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성적 대처, 회피, 부정적 간섭 및 행동표출의 세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 행동에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한 문항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유형의 대처방식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단, 이성적 대처유형은 역채점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이 척도에서 얻은 총점이 클수록 부정적이고 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

Table 1. Cronbach'a between Husbands' and Wives' Scores

N = 586

변인	남편	아내	
성격특성	외향성	.721	.817
	친화성	.702	.657
	성실성	.768	.731
	신경성	.797	.858
	개방성	.675	.638
갈등대처 방식	이성적 대처	.657	.673
	회피	.515	.637
	부정간섭표출	.823	.816
부부적응	.947	.973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는 이성적 대처 .66, 회피 .52, 부정적 간섭, 행동표출 .82 이다.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내적 일치도 (Cronbach' alpha)는 이성적 대처 .67, 회피 .64, 부정적 간섭 및 행동표출 .82로 나타났다.

3) 부부적응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적응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경성과 한덕웅(2003)이 개발한 결혼적응검사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부적응 측정을 위해 결혼만족(7문항), 이혼의도(8문항), 부부간의 친밀성(8문항), 상호소통(4문항), 성적만족(5문항)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부적응척도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를 Likert척도로 평점하였다. 본 척도의 1, 2, 3, 4, 6, 8, 9, 10, 11, 12, 13, 15, 20, 22, 23, 25, 28번 문항은 역채점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총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남편이 .95이며, 아내가 .97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및 빈도 파악을 위해 척도화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과 부부적응 간의 성별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 적응에 있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영향을 주요 변인으로 제시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다문화부부의 개인적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식에 의한 영향에 집중하였다. 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들 간의 상호작용항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MR)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MR)은 연구자가 설정하는 조절변수의 질에 따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조절적 다중회귀분석(MMR)에서 조절변수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독립변수로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분석방법과 동일하며, 조절효과 분석의 마지막 3단계에서 상호작용항(독립변수 \times 조절변수)을 회귀식에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설명력(R-square)이 유의수준 하에서 증가하였다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해석한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남편의 연령은 40대(63.1%)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아내는 30대(33.9%)와 20대(33.6%)에서 높게 확인되었다. 다문화부부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남편 55.7%, 아내 43.6%)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문화남편의 직업은 기술직(39.7%), 자영업(18.8%)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다문화아내는 대부분이 가정주부(65.1%)로 나타났다. 다문화부부의 결혼경로는 중매업체를 통한 결혼(남편 25.2%, 아내 25.8%), 종교단체(남편 22.5%, 아내 23.5%)와 친구의 소개(남편 26.8%, 아내 22.9%)를 통한 결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부부의 결혼연수는 5년에서 9년 미만(50.1%), 5년 미만(22.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아내의 출신국은 중국(33.6%), 베트남(32.6%), 일본(2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부부의 가계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이 37.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은 30.8%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평균 GDP가 약 27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다문화가족은 다소 낮은 평균을 기록하고 있다.

2. 다문화부부간 성격유형, 갈등대처방식 그리고 부부적응의 차이

다문화부부 남편과 아내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 부부적응의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부부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 부부적응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참조).

부부간 성격특성의 차이는 개방성($t = -4.235, p > .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격특성 중 개방성은 다문화남편보다 아내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욱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Buss, 1991; Kuhn, 1991).

다문화남편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부부간 갈등대처방식의 차이는 이성적 대처($t = 4.335, p > .001$), 회피($t = -2.604, p > .01$), 부정간섭표출($t = -4.731,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다문화부부의 갈등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 아내는 남편보다 회피와 부정, 간섭표출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

Table 2. T-test between Husbands' and Wives' Scores

N = 586

변인	다문화남편		다문화아내		t	
	M	SD	M	SD		
성격특성	외향성	18.27	2.819	18.01	3.479	1.001
	친화성	17.37	3.156	16.89	2.962	1.900
	성실성	17.67	3.114	17.16	2.955	2.065
	신경성	12.15	3.747	12.62	4.233	-1.414
	개방성	15.91	3.206	16.96	2.878	-4.235***
부부갈등 대처방식	이성적 대처	17.23	3.259	16.05	3.410	4.335***
	회피	12.96	3.021	13.66	3.474	-2.604**
	부정간섭표출	12.85	4.269	14.62	4.856	-4.731***
부부적응	128.97	19.103	121.49	26.818	3.920***	

** $p < .01$, *** $p < .001$

났다. 아내가 남편에 비해 갈등표출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며 갈등상황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언어적 대처를 더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영희 · 정선영, 2007; 이선미 · 전귀연, 2001; Lawrence, 1997).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보다 더 많은 친밀성을 원하기 때문에 친밀성이 파괴된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더 요구적이거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남편보다 아내가 구체적인 갈등대처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Christensen & Shrenk, 1991; Gottman & Krokoff, 1989).

다문화남편과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t = 3.920,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문화부부의 남편은 아내보다 부부적응의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 혹은 부부적응의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선미 · 전귀연, 2005; Lussier and Sabourin, 1999)들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3.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 갈등대처방식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부부의 남편과 아내 스스로가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갈등대처방식과 상대방의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모든 하위 변수를 센터링(centering)하여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킨 후, '성격특성 x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부부적응을 종속변수로 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Model 1에서는 본인이 지각한 성격특성을 투입하였고, Model 2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을 투입하였다. Model 3에서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 간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하였다. 다중공선성의 위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VIF값을 산출하였다. Model 3에서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β 값이나 R^2 증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갈등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18에서 .63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4>는 다문화아내가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실시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Model 1에서는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성실성과 개방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은 53.5% 이었다. 즉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 중 성실성($\beta = .19, p > .01$)과 개방성($\beta = .22, p > .001$)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아내의 이성적 대처($\beta = .18, p > .01$), 아내의 회피($\beta = -.19, p > .01$), 아내의 부정간섭표출($\beta = -.25, p > .001$), 남편의 회피($\beta = -.17, p > .01$),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27, p > .01$)이 아내의 부부적응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다문화아내는 본인이 갈등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회피와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N = 586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Husbands' and Wives' Dat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Husbands' Data																		
1	1																	
2	.50***	1																
3	.54***	.629***	1															
4	-.27***	-.185**	-.197**	1														
5	.34***	.439***	.453***	.077	1													
6	.45***	.414***	.497***	-.089	.481***	1												
7	-.11***	-.068	-.124*	.510***	.059	.128*	1											
8	-.32***	-.35***	-.29***	.517***	-.175*	-.28***	.432***	1										
9	.50***	.512***	.430***	-.26***	.205***	.367***	-.190**	-.44***	1									
Wives' Data																		
10	.070	-.043	-.057	.046	.045	-.043	-.28***	-.089	.112	1								
11	-.055	.035	.087	.005	.047	.003	-.23***	-.071	.095	.492***	1							
12	.131*	.069	.079	-.078	.039	.004	-.093	-.038	.085	.492***	.280***	1						
13	-.010	.092	-.134*	.189	.087	-.054	.045	.021	-.179**	.102	.283***	.147***	1					
14	.100	.009	.052	-.154**	.032	-.013	-.134*	-.068	.051	.433***	.325***	.633***	.182**	1				
15	.091	.144*	.038	-.088	.085	.153**	-.123*	-.085	.095	.412***	.401***	.309***	.096	.308***	1			
16	.054	.112	-.085	.034	.039	.013	.159**	.058	-.025	.106	.080	.143*	.363***	.086	.015	1		
17	-.037	-.069	-.089	.113	-.018	-.124*	.182**	.244***	-.21***	-.148*	-.020	.201***	.041	-.23***	.601***	.601***	1	
18	.268***	.387***	.181**	-.175**	.078	.099	-.184**	.503***	.090	.061	.194**	-.008	.222***	.174**	-.154**	-.25***	-.25***	1

*p < .05, **p < .01, ***p < .001

footnote 1)남편의 외향성, 2)남편의 친화성, 3)남편의 성실성, 4)남편의 신경성, 5)남편의 개방성, 6)남편의 이성적 대처, 7)남편의 회피, 8)남편의 부정간섭표준, 9)남편의 부부적응, 10)아내의 외향성, 11)아내의 친화성, 12)아내의 성실성, 13)아내의 신경성, 14)아내의 개방성, 15)아내의 이성적 대처, 16)아내의 회피, 17)아내의 부정간섭표준, 18)아내의 부부적응

Table 4. Influences of Wives' Personality Patterns on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Wives' Conflict Resolution Styles N = 586

예측변인	부부적응					
	아내성격특성 > 아내갈등대처			아내성격특성 > 남편갈등대처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β		
성격특성 (A)	외향성(A1)	.09	.09	.20	.09	-.77**
	친화성(A2)	.06	-.07	.25	.06	-.79*
	성실성(A3)	.19**	.22***	.35**	.19**	-.77*
	신경성(A4)	-.01	-.03	.17	-.01	-.38
	개방성(A5)	.22***	.23***	.15	.22***	-.70*
갈등대처 (B)	이성적 대처(B1)		.18**	.38*	.10	-.92**
	회피(B2)		-.19**	.18	-.17**	-.64**
	부정간섭표출(B3)		-.25***	-.37	-.27***	-.33
성격특성x갈등대처 (AxB)	외향성x이성적대처(A1xB1)			-.35		1.17**
	외향성x회피(A1xB2)			-.46*		-.25
	외향성x부정간섭표출(A1xB3)			-.51*		-.73
	친화성x이성적대처(A2xB1)			-.09		1.22*
	친화성x회피(A2xB2)			-.35		.27
	친화성x부정간섭표출(A2xB3)			-.44		.07
	성실성x이성적대처(A3xB1)			-.21		1.39**
	성실성x회피(A3xB2)			-.27		-.32
	성실성x부정간섭표출(A3xB3)			.27		.01
	신경성x이성적대처(A4xB1)			-.25		.43
신경성x회피(A4xB2)			-.29		.84*	
신경성x부정간섭표출(A4xB3)			-.26		-.74**	
개방성x이성적대처(A5xB1)			.07		1.39**	
개방성x회피(A5xB2)			-.29		-.72	
개방성x부정간섭표출(A5xB3)			.13		-.33	
R ²	.535	.578	.599	.535	.592	.623
ΔR^2		.043**	.052**		.044***	.062**

*p < .05, **p < .01, ***p < .001

Table 5. Influences of Husbands' Personality Patterns on Marital Adjustment by Interacting with Husbands' Conflict Resolution Styles N = 586

예측변인	부부적응					
	남편성격특성 > 남편갈등대처방식			남편성격특성 > 아내갈등대처방식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β					
성격특성 (A)	외향성(A1)	.50***	.49***	.56**	.50***	.71*
	친화성(A2)	.51***	.44***	.39*	.51***	.58**
	성실성(A3)	.43***	.33***	.71***	.43***	.53*
	신경성(A4)	-.26***	-.23***	-.49*	-.26***	-.22*
	개방성(A5)	.21***	.04	.60**	.21***	.21***
갈등대처 (B)	이성적 대처(B1)	.35**	.35**	.67**	.08	.34
	회피(B2)	-.16**	-.16**	-.51*	-.05	-.98*
	부정간섭표출(B3)	-.41***	-.41***	.68***	-.19***	.98**
성격특성x갈등대처 (AxB)	외향성x이성적대처(A1xB1)			-.27		-.37
	외향성x회피(A1xB2)			.43		1.09*
	외향성x부정간섭표출(A1xB3)			-.51*		-.73
	친화성x이성적대처(A2xB1)			.08		-.12
	친화성x회피(A2xB2)			-.71**		-.07
	친화성x부정간섭표출(A2xB3)			.32		-.22
	성실성x이성적대처(A3xB1)			-.74*		-.16
	성실성x회피(A3xB2)			.24		.12
	성실성x부정간섭표출(A3xB3)			-.54*		-1.27***
	신경성x이성적대처(A4xB1)			.31		-.04
신경성x회피(A4xB2)			.39		-.08	
신경성x부정간섭표출(A4xB3)			.49*		-.69**	
개방성x이성적대처(A5xB1)			-.95**		-.67	
개방성x회피(A5xB2)			.29		-.74**	
개방성x부정간섭표출(A5xB3)			-.47		-.98**	
R ²	.554	.593	.701	.554	.593	.671
ΔR^2		.039*	.060**		.039**	.056**

*p < .05, **p < .01, ***p < .001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아내는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회피 혹은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과 ‘아내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Model 3에서는 ‘아내의 외향성x 아내의 회피($\beta = 1.17, p > .01$)’, ‘아내의 외향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1.22, p > .05$)’, ‘아내의 친화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1.39, p > .01$)’, ‘아내의 신경성x 남편의 회피($\beta = .84, p > .05$)’, ‘아내의 신경성x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74, p > .01$)’, ‘아내의 개방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1.39, p > .01$)’의 상호작용항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향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덜 요구적일수록,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적응은 높게 지각되었다. 친화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적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신경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조금 물러나 부정적 간섭과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개방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부부적응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아내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게 하였다. 또한 다문화아내의 부부적응은 본인의 갈등대처방식보다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에 더욱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기존의 일반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들(Christensen and Shrenk, 1991; Gottman and Krokoff, 1989)과 유사하였다.

2) 다문화남편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

다문화남편의 성격특성,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 간의 상관관계와 각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18에서 .63으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는 다문화남편이 지각한 성격특성과 부부적응 사이에서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조절적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Model 1에서는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4가지 성격특성(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경성만은 남편의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문화남편이 지각하는 성격특성 중 외향성($\beta = .50, p > .001$), 친화성($\beta = .51, p > .001$), 성실성($\beta = .43, p > .001$), 그리고 개방성($\beta = .21, p > .001$)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다문화남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남편이 자신의 성격특성 중 신경성($\beta = -.26, p > .001$)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신의 부부적응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을 추가한 Model 2에서는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35, p > .01$), 남편의 회피($\beta = -.16, p > .01$),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41, p > .001$), 아내의 부정간섭표출($\beta = -.19, p > .001$)이 남편의 부부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다문화남편은 갈등상황에서 본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회피와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은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간섭 및 감정표출을 적게 할수록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남편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과 ‘남편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남편의 성격특성과 남편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남편의 외향성x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51, p > .05$)’, ‘남편의 친화성x 남편의 회피($\beta = -.71, p > .01$)’, ‘남편의 성실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74, p > .05$)’, ‘남편의 성실성x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54, p > .05$)’, ‘남편의 신경성x 남편의 부정간섭표출($\beta = .49, p > .05$)’, ‘남편의 개방성x 남편의 이성적 대처($\beta = -.95, p > .01$)’가 남편 본인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이고 간섭적인 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화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가 적을수록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하였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부부적응이 향상되었으며,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이성적 대처가 적을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편, ‘남편의 성격특성과 아내의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한 결과, ‘남편의 외향성x 아내의 회피($\beta = 1.09, p > .05$)’, ‘남편의 성실성x 아내의 부정간섭표출($\beta = -1.27, p > .001$)’, ‘남편의 신경성x 아내의 부정간섭표출($\beta = -.69, p > .01$)’, ‘남편의 개방성x 아내의 회피($\beta = -.74, p > .01$)’, ‘남편의 개방성x 아내의 부정간섭표출($\beta = -.98, p > .01$)’의 상호작용항이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덜 요구적일수록 부부

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의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이 적을수록,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아내의 회피와 부정간섭표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종합하면,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에 있어 남편의 성격특성은 그 자체로 부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문화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가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회피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하는 것이 부부적응에 긍정적이었다. 한편, 다문화남편은 아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받으나 본인 스스로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부부적응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Paired Data를 통해 결혼생활 적응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는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부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관계갈등에 집중하여 부부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관계적응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사회적인구학적 변인보다 관계적 변인으로 성격유형과 갈등대처방식이 다문화 부부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격특성 중 성실성과 개방성은 다문화부부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공통된 성격요인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에서 성실성은 남편의 결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Charania, 2006; Zimet, 2001), 아내의 성실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Lavee & Ben-Ari, 2004). 이는 성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낮은 충동성, 관계에 대한 책임감, 규칙과 규범준수 등의 특성이 부부관계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방성은 개인의 인지능력과 관련하여 개방적 사고를 가능케 하므로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문화차이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다(Buss, 1991; Kuhn, 1991).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부부들은 결혼 전 커플 간에 충분한 상호작용 및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적응에 있어 개인의 성격특성이 결혼생활의 질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결혼 전 예비다문화부부들에게 성격유형검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과 예비 배우자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호이해가 촉진되어 보다 건강한 부부생활을 설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은 다문화남편의 부부적응을 유의미하게 증감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아내의 부부적응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남편의 부부적응은 배우자의 성격특성보다 자신의 성격특성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었다. 이는 남편의 성격특성이 안정적인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선주(2002)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이를 통해 다문화부부의 결혼생활에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인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외향적인 남편은 따뜻하고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내들의 부부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다(Klaus and Anna-Katharina, 2002). 친화성이 높은 남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헌신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미·김영희, 2009). 반면, 본 연구에서 남편의 신경증만은 부부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신경증은 개인내적 성향으로 부정적 감정표현과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보다는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경증은 충동성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여 갈등상황을 야기시키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김경미·김영희, 2009; Caughlin, Huston, & Houts, 2000; Sullivan, 1997).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인 남편의 성격특성이 다문화부부의 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아내에 반해 다문화남편은 주류문화에 익숙하고 유교사상에 기인한 가부장적 관습으로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다문화부부관계에 작용하는 한국인 남편의 영향력은 부부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기관에서 다문화아내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남편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다문화아내들에게 우리 문화만을 강조하는 양상이 되어가고 있다. 건강한 부부적응을 위해서는 남편대상의 결혼준비교육, 배우자교육 등의 가족생활교육이 더 개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남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운동회, 가족캠프, 가족봉사단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가정 내에서 남편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남편의 역할을 발견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부부의 갈등대처방식은 부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갈등상황에서 회피와 부정간섭 및 표출은 아내의 경우 적게 할수록, 남편의 경우 많이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이성적 대처는 적극적일수록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의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부부관계에 대해 남편보다 민감하고 반응적이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발생하면 배우자에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 알려주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남편은 부부관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부부관계에서 독립성을 원하기 때문에 아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은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인다(Christensen & Shrenk, 1991; Gottman & Krokoff, 1989). 선행연구에서는 남편이 갈등상황에서 더 적극적일수록, 아내는 덜 반응적일수록 부부적응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Weiss, 1980; Worrell, 1988).

이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결혼 전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다문화부부들은 더욱 많은 갈등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정하고 부부갈등에 보다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갈등해결기술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주로 다문화아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향상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결혼과정에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다문화부부의 상호이해부족은 보완하되 관계향상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부부집단상담이나 배우자교육을 활성화하여 다문화부부 적응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초기 다문화부부를 대상으로는 건강한 다문화부부를 역할모델링으로 선정한 후, 자조모임의 형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도 실질적인 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남편과 다문화아내들만의 멘토링 그룹은 보다 편안하게 갈등대처기술 및 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결혼생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부부들에게 권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의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아내의 성격특성들은 남편의 갈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외향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일수록, 남편이 이성적으로 대처할수록 아내의 부부적응은 높게 지각되었다. 친화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이성적 대처가 많을수록 부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이 덜 요구적이고 부정적 간섭과 표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개방성이 높은 아내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남편의 이성적인 대처가 많을수록 부부적응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편의 성격특성 역시, 본인의 갈등대처방식 및 아내의 갈등대처방식과 상호작용하여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부정적이고 간섭적인 행동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친화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회피가 적을수록 본인이 지각하는 부부적응 역시 높게 지각되었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부부적응이 오히려 향상되었으며,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이성적 대처가 적을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외향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부부적응에 긍정적이었다. 성실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가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을 적게 할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경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아내의 부정적 간섭 및 표출이 적을수록, 개방성이 높은 남편의 경우, 갈등상황에서 아내의 회피와 부정간섭표출이 적을수록 부부적응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다문화부부의 관계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적 접근이 분석적이고 세밀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다문화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은 결혼초기의 문화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프로그램(박경동, 2007; 이아진 등, 2011)들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건강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다문화부부의 관계적응은 모든 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부부들이 가지는 관계갈등에 대해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혼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언론의 부부치료 프로그램과 같이 다문화부부의 갈등구조를 파악하고 코칭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문화부부에게 적합한 부부관계교육 및 집단상담매뉴얼의 개발이 한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총괄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루어져 지자체의 센터들로 배포된다면 다문화부부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부부가 경험하는 관계갈등의 주요원인으로 문화적 차이만을 강조하는 선행연구(김오남, 2006; 박경동, 2007; 신경희 등, 2006;

이아진 등, 2011)들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아내의 출신국, 본국의 경제적 수준, 학력 등), 결혼기간, 부부갈등정도, 자녀 수, 아내의 한국어실력 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문화부부에게 있어서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부부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오남, 2006; 박경동, 2007; 신경희 등, 2006; 이아진 등, 2011)들의 결과에 상반된다기보다 다문화부부의 관계적 요인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속 연구에서 다문화부부의 관계적 변인과 더불어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아내의 출신국, 본국의 경제적 수준, 학력 등), 결혼기간, 부부갈등정도, 자녀 수, 아내의 한국어실력 등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여 보다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수도권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부부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여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미흡함이 있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수도권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을 통해 본다면, 추후 연구에서 거주 지역 간 다문화부부적응의 비교연구를 통해 다문화 부부의 적응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부부 대상으로 커플자료를 이용한 성격특성과 갈등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문화부부에게 적합한 관계적응 방안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관계에서 부부간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의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내 한국인 남편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 마련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미래의 건강한 다문화부부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만의 노력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의 역할과 부부로서의 공동책임을 인식하여 이들 모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

- Baucom, D. H., and Epstein, N.B.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Y.: Brunner, Mazel.
- Benet-Martinez, V., & John, O, P. (1998). Los cinco grandes across cultures and ethnic groups: Multitrait multimethod analyses of the Big Five in Spanish and Englis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729-750.
- Berko, R, M., Rosenfeld, L, B., and Samovar, L, A.(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tency(2nd)*. N.Y.: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Bowman, M. L.(1990), Coping efforts and marital satisfaction: Measuring marital coping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463-474.
- Buss, D. M.(1991). Conflict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predictors of anger and upset. *Journal of Personality*, 59, 663-688.
- Caughlin, J. P., Huston, T. L., and Houts, R. M.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26-336.
- Chang, J, Jun, J. & Shin, Y.(2009). Analysis of resilience factor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depth interview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21-38.
- Chang, J. & Shin, Y. (2010b). Adaptation of Chinese immigrant families and political improvement: Around American society and Korean societ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Human Ecology*.
- Chang, J. & Shin, Y.(2009). In Study on investigate the distress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Hill's ABCX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4), 103-116.
- Chang, J. & Shin, Y.(2010a). A case study on adaptability factors in family life for 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inter-culturalism.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109-122.
- Choi, K.(1994). A Study on Types of Family Systems, Marital Conflict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40-152.

- Chrania, M.(2006), Personality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 examination of actor, partner, and interaction effec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 Section B: *The Science and Engineering*, 67(6-B), 3504.
- Christensen, A., Jacobson, N. S., and Babcock, J. C.. (1995). *Integrative behavioral therapy*. In N. S. Jacobson and A.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Guilford.
- Christensen, A., and Shenk, J.(1991). Communication,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ance in nondistressed, clinic, and divorcing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458-463.
- Costa, P. T., and McCrae, R. R.(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avid C. Funder (2001). Personality. *Psychology*. 52, 197-221.
- Dominian, J.(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Heinemann.
- Fitzpatrick, M. A.(1998b). *Negotiations, problem solving and conflict in various types of marriages*. In P. Noller and M.A. Fitzpatrick(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Philadelphia, PA: Multilingual Matters.
- Fitzpatrick, M. A., Follis, S., and Vance, L.(1982). Multifunctional coding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marital dyads. *Family Relations*, 31, 611-670.
- Fitzpatrick, M.A.(1998a). *Between husbands and wives: Communication in marriage*. Beverly Hills, CA: Sage.
- Fu, X., & Heaton, B. T.(2000). Status exchange in intermarriage among Hawaiians, Japanese, Filipinos and Caucasians in Hawaii: 1983-1994.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1), 45-63.
- Gattis, K. S., Berns, S., Simpson, L. E., and Christensen, A.(2004), Birds of a feather or strange birds? Ties among personality dimensions, similarity,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564-574.
- Gong, S. S.,(2010). Relationships between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Psychological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Positive Affect, and Conflict Regulation in Clinic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3), 336-348.
- Gottman, J. M.(1993). The roles of conflict engagement, escalation, and avoidance in marital interaction: A longitudinal view of five types of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6-15.
- Gottman, J. M.(1994a).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and Schuster.
- Gottman, J. M.(1994b).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Gottman, J. M., and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 Gottman, J. M., and Levenson, R.W.(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21-233.
- Heavy, C. L., Layne, C., and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ong, D. & Chae, O.(2007). The values, communication type and conflict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6(4), 733-744.
- Joe, Y.(2000). *Marital conflicts, conflict coping behavior and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Johnson, S.M., and Greenberg, L. S.(1995). The emotionally focused approach to problems in adult attachment. In N.S. Jacobson and A.S. Gurman(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N.Y.: Guilford.
- Kim, E.(2002). Globalization, nation-State and women's sexualities. *Women's Studies Review*, 19, 29-46.
- Kim, K. & kim, Y.(2009). Interaction of couple's personality dimensions & Conflict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3), 327-352.
- Kim, O.(200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Family and Culture*, 18(3), 63-106.
- Kim, Y. & Jun, S.(2007).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lict-coping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5), 65-82.
- Kitzman, K. M.(200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subsequent triadic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13.
- Kuhn, D. (1991). *The skills of argument*.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wrence. A. Kurdek. (1995). Predicting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from Husbands' and Wives' Con-

- flict Resolution Sty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1), 153-164.
- Lawrence, A. Kurdek.(1997). Relation between neuroticism and dimensions of relationship commitment: Evidence from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109-124.
- Lee, A. & Choi, Y.(2011).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1), 71-90.
- Lee, H. S., and Kim, K. Y.,(2005).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al Conflicts and Conflict Cop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Personality Type Consist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12, 51-79.
- Lee, H.(2004). A review study on the impact of divorce upon children's well-being. *Journal of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10, 47-53.
- Lee, K. & Han, D.(2003). Development of the marital adjustment inventory(MAI).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3), 679-705.
- Lee, S. & Jeon, K.(2001). The effect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coping method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203-220.
- Lee, S. & Jeon, K.(2005). The effect of couple's interaction pattern of the conflict-coping method asperceived by the husband and wif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in the early stage of marital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43(7), 93-107.
- Lee, S. M., and Jun, G. Y.,(2001).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Coping Method on Couple's Marital Satisfaction in Early Stage of Marital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5), 203-220.
- Lee, Y. S., and Back, K. L.,(2011). Wives' and Husbands' Conflict Coping Styles and Marital Adaptation.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5(3), 363-372.
- Lewellen, T.C.(2002). *The Anthropology of Globalization: Cultural Anthropology Enters the 21st Century*, Bergin and Garvey, Westport.
- Lim, S. & Kang, S.(2011).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Korean husband from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3), 251-272.
- Lussier, Y., and Sabourin, S.(1999), Personality and marital adjustment: Utility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51-660.
- M Sissons Joshi & M Krishna (1998). *English and North American daughters-in-law in the Hindu joint family*. In R Breger & R Hill (Eds.)
- McFadden, J., and J.L. Moore III.(2001). Intercultural marriage and intimacy: beyond the continental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23, 261-268.
- Oh, S.(2002). Comparison between the husband and the wife =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the self and the spouse and marital qual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10), 201-215.
- Park, K.(2007). *Study on the making and confli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Rands, M., Levinger, G., and Mellinger, D.D.(1981). Patterns of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 297-321.
- Retzinger, S. M. (1991b). Shame, anger, and conflict: case-study of emotion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37-59.
- Robins, R. W., Caspi, A., and Moffitt, T. E.(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s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51-259.
- Schneewind, Klaus A.; Gerhard, Anna-Katharina (2002). Relationship personality,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the first 5 years of marriage. *Family Relations*, 51(1), 63-71.
- Shin, K. & Yang, S.(2006). Marital conflicts of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1-8.
- Shute, C. L., & Spitzberg, B. H. (2003). *Intercultural couples: 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Paper presented at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s, Honolulu, HI.
- Song, M.(1990).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nflict and the coping behavior of urban

-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8(2), 31-47.
- South, S.C., Turkheimer, E., and Oltmanns, T. F. (2008).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and marit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769-780.
- Sullivan, K.T.(1997). *Contributions of personality and behavior to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Turgeon, L., Julien, E., and Dion, E. (1998). Temporal linkages between wives' pursuit and husbands'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Family Process*, 37, 323-334.
- Weiss, R. S. (1980). Strategic behavioral marital therapy: Toward a model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Vol. 1, pp. 229-271)*. Greenwich, CT: JAI Press.
- Williams, L., & Tappan, T.,(1995). The utility of the Myers-Briggs perspective in couples counseling: A clinical framework.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 367-371.
- Worrell, J. (1988). Women'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477-498.
- Yang, S. & Chung, H.(2006). Variable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marital life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 of rural in Korea.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1(3), 223-252.
- Yang, S. H., Yang, C. H., Kim Y. J., Son, S. Y., Shin, B. G., and Joe, J. H.,(2004). A Study on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Foreign Wives in the Gwangju and Jeonnam Area.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16, 127-149.
- Zimet, D. M.(2001). *The interaction of personality traits on concurrent and prospective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acific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Palo Alto California.

접수일 : 2012년 12월 06일

심사일 : 2013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17일